

신생아 분실 사건에서

~겪고 느낀 것~



<서울의대부속병원 간호과> 안 난 이

지금에서 아쉬움과 후회가 앞선다. “도둑 하나에 지키는 사람 열도 감당 못한다”는 옛말도 있다지만 나는 이번이 크나큰 사건을 통해서 보다 철저하고 보다 정확하게 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에서 펜을 굴러 본다.

1967년 11월 28일이 없었더라면 하고 생각도 해 본다. 그러나 한편 이 날이 얼마나 내게는 크나큰 교육을 가져 왔는가 하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 날이 있었던 것이 불행중 다행으로 여겨진다. 하나 그 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나는 이제 그날의 암담하고 놀랐던 실경을 되새겨 본다.

사건은 아직도 미궁에서 헤메이고 있다. 석연치 않은 마음, 울화가 치미는 마음, 자칫하면 움직이는 펜까지 전율을 느낄 정도이다.

× ×

11월 28일 아침 9시 경이다.

나는 평상시와 같이 서-병동 부

인과 병동에서부터 병실 순회를 시작했다.

말하자면 첫 병동에 발을 디러 놓은 셈이다.

간호원실 미쳐 못가서 처치실 가까이 갔을 때 심상치 않은 침뚫한 표정에 놀랜 表情을 짓고 있는 두 사람의 수간호원을 보고 나는 빗뜬

“무슨 일이 생겼어”하고 물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니씨는 누구보다도 그 표정들이 밝고 향시 미소와 특례로서 나를 맞이하던 부인과 수간호원과 신생아실 수간호원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 섬짓해서 물었다.

“큰일 났어요” 하는 한 사람의 말과 동시에 나는 손목을 잡힌 채 conference room으로 끌려다시피 달려갔다.

“글쎄 얘기가 하나 없네요” 하는 것은 부인과 수간호원의 말이었다. 얘기방 수간호원은 미쳐 말문을 꺼내지도 못하고 그저 열기를 면 예쁘장한 얼굴에 두 줄기의 눈물만이



호르고 있었다.

나는 온몸에 피가 한 곳으로 물리
는듯 굼시라도 감각을 잃는 듯했다.

“무슨 소리아” 하고 애기방 수간
호원의 손을 잡아 당기며 두 말 하
지 않고 신생아실로 달려갔다.

두 사람은 그간 아무 말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어제 저녁 온
번 발원 간호원들이 서로 이방 저
방에서 애기들을 들여다 보고 있었
다.

어쨌던 애기가 없어진 것만은 사
실이였다.

이제 와서 인제가 어쨌다 문짜이
어쨌다 하고 서로의 정확했음만을
주장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누구
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선 나
는 두 사람에게 애기가 없어지기 전

까지의 상황을 하나 하나 캐어 들었
다. 당황했던 나머지 두 사람은 엇
갈린 대답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일치되는 대답도 했다. 그러면
서 나는 간호과장님께 연락을 드렸
더니 단숨에 달려 오셨다.

그 표정은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
던 긴장된 모습이었다.

과장님은 차근차근히 이것 저것
물어 보시고 그 다음 절차를 밟으셨
다. 이곳 저곳 수사당을 띄기 시작
했고 첫째로 애기 아빠에게 연락했
다. 처음에는 모든 일이 쉽게 알아
질듯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수사를 시작한 당시 우리 주위
의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였다. 따
라서 마음이 다소 가라앉았다.

그러나 가라 앉힐 수 있었던 처음

반드시 봐준, 딸의 수사관 집집 보포 해 갔다.

며칠씩을 밤을 새웠다.

급시 알아질듯 급시 손에 잡힐듯 한 사건의 실마리는 10일이 지나도 20일이 지나도 해결되질 않았다.

수사관들은 계속 근무를 했다. 간호원들도 지쳐 있었다.

더우기 안타깝게 여겨진 것이 있다. 과장님께서 손수 수사관 이상의 수사와 협조를 하셨다. 전신에 피로가 묻혀 아픈 증상들이 한가지 두가지 나타났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셨다.

이렇듯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면서 벌써 두달이 지났다. 이러한 노고와 수고도 아랑곳 없이 사건은 점점 디렘마에 빠지고 있다.

× ×

이것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느낀 듯 했고 또 배운듯 했다. 아니 배웠고 느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객장을 넘기면서 글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몸소 이 일을 당하면서 스스로 느끼면서 배운 것이다. 그러나 비단 나. 단의 일은 아니다.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원, 아니 간호원의 면허증을 소지한 전국적인 간호원들에게 주는 크나큰 교육이라고 본다. 비단 이러한 일이 어느 한 병원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거기

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해서는 크나큰 잘못일 것이다.

병원 아니면 영아원 고아원 등등의 이름을 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 한사람 한사람은 이 일을 내 일처럼 몸소 느껴야 할 것이다.

나는 무엇이던지 “분명하게” “경확하게” 하는게서만이 실수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그런데 비단 이러한 느낌이 나만의 경우는 아니다.

나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당한 두 명의 간호원의 소감도 들어봤다.

그들 역시 나와 비슷한 얘기다. 우선 끔번 일에 대해 사회적인 불의를 일으킨데 대해 죄송하고 역시 잘못을 저지른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그런데 그들의 느낌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이 사건에 대한 간단한 실마리를 여기에 써 봐야 할 것 같다.

× ×

앞에서도 얘기한 바와 같이 얘기는 벌써 작년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1967년 11월 28일 0시 30분 경에 있었던 일이다.

초번 간호원 한테서 인계를 받은 밤번 간호원이 인계를 받은 후 옆에 있는 조산아실의 애기들이 몹시 울기에 우유를 얼른 데워 가지고는 한 아이 한 아이를 돌아가면서 세 아이를 전부 먹이고 있을 때, 또 다른 방의 신생아의 울음 소리가 요란했던

것이다.

얼른 조산아의 feeding을 마친 후 종종 걸음으로 옆방으로 갔다. 두 줄로 아기 침대 24대가 놓인 곳이라서 끝쪽 침대까지는 작업상 빼던 거리였던 것이다.

철상 가상으로 요란스럽게 울던 아기의 자리는 침대 맨 안쪽, 즉 간호원이 일하는 책상에서는 제일 먼 거리였음을 간호원은 발견하고 즉시 그 애기를 간호원이 일하는 책상 가까이 빈 침대를 옮기려고 생각했다. 생각하면서 바로 애기를 작업 장소 가까이 옮겼다. 그때 그 옆 침대에 있던 김×× 애기가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엄마한테 가 있으려니 생각하곤 그 다음 일을 계속했다.

18명의 아기와 조산아 3명을 혼자서 간호하느라 무척 분주하게 받을 보였다. 아기 21명을 혼자서 돌본다는 것은 절대적인 두리였다. 아침 5시가 되었다. 그때까지도 김애기는 오질 않았다.

새벽 2시 charting 때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니와 5시 charting 때도 역시 같은 생각이 들었다.

생후 겨우 24시간 밖에 안된 초산아가 母乳도 잘 안나올텐데 너무 오래 엄마한테 가 있다고 혼자 생각했다. 혹시 젖을 덕여 보느라고 그러는거겠지 하면서도 이상하여 산모에게 달려가서 슬그머니 들여다보니 애기가 보이지 않았다.

설췌했다. 애기방으로 뛰어가서 애

기수와 침대수와 대조해 보았다. 이상하여 또 산모에게 달려가서 이방저방 다 찾았다. 아침 7시가 되도록 혼자서 침대수와 산모수와 애기수와 그리고는 chart 수와 대조하며 확인했다. 그러나 애기는 어쨌던 하나가 없었다. 당황해졌다.

그러야 자신이 초번 간호원한테서 확실히 이 애기가 자리에 있던 것을 인계 받았는지 아니면 엄마한테 가 있다고 인계 받았는지 간밤의 일이 전단 아티송해졌다.

7시반이 되어 수간호원에게 얘기했다. 당황한 수간호원은 이방저방 뛰어 다녔다. 초번 간호원도 뛰어 나왔다. 그제서야 옥신 자신 인계를 분명히 했다는니 인계를 받은 것 같지 않다느니 하고 밤 사이의 일들을 더듬곤 했던 것이다. 이것이 벌써 기억에서 지어져 갈 정도로 옛 일같이 되어 가는 신생아 도난 사건의 활거리가 되겠다.

× ×

전세계를 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어야 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이모 저모 조사하고 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기록과 인계와 기억을 토대로 했다.

인간인지라 기억으로 모든 것을 쌓아 둘 수는 없었다. 기록만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하여 그들은 이러한 것들의 재강화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첫째도 인제인주 사람이 정확해야겠다는 것이다. 인제자가 자기 근무시에 있었던 일 하나 하나를 전부 인제하고 동시에 인수자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나머지 일을 시작해서 자기 근무 시간 내지 근무시간 외라도 자기 분야의 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겠다는 것이다.

◇둘째로 기록을 정확히 해야겠다는 것이다.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학교시절 혹은 졸업 후에도 귀가 아프도록 들어 왔으나 이것이 법의 앞에서까지 이와 같이 큰 역할을 한다고는 추후도 생각 못했다는 것이다.

◇셋째로 애기는 반드시 간호원이 직접 데려다 주고 데려 오되 보호자에게는 하인을 막론하고 주지 않아야 한다는 제도상의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넷째로 정신과 육체가 해이해지지 말고 항상 긴장한 가운데 창의력을 발휘해야겠다는 것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격이 되었으나 지금부터라도 잘 해 보겠다는 그들의 애기자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애기를 찾는 그날 그들도 나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우리가 느낀 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강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할 나머지 다음과 같은 사환을 현재 본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분만실 간호원이 해야 할 일

① 산모가 입원하면

1. 소정의 수속이 끝난 다음 입실시킨다.
2. 산모의 팔에 팔찌를 끼우되 내용을 자세히 기입한다. 즉 산모 이름, 입원년월일, 연령.
3. 산모의 chart를 만든다.
4. 의사의 order를 받아 처치한다.

② 분만장에서 할 일

1. 미리 set를 준비한 다음 산모를 분만장으로 옮긴다.
2. 분만 즉시 애기 sex와 일반 상태를 산모에게 알린다. 만약에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산모 보호자에게 얘기를 보이고 위의를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기형인 경우에도 보호자에게 먼저 알리고 산모에게 차차 알린다.
3. 애기 처치가 끝난 다음 엄마의 팔찌를 들어서 체중, 성별, 분만일자 및 시간, 분만형을 기록한 후 애기 발에 끼운다.
4. 처치가 끝난 다음 보재기로 쓴다.
5. 준비된 애기 chart에다 애기성명, 애기성별, 분만 시간, 및 알자, 분만형, 체중, 기형 여부, 애기받은 의사이름, 일반상태 및 애기 상황을 누구에게 알렸다는

것을 기록한다.

※ 애기용 chart는 항상 분만장에 준비해 둔다.

③ 신생아실 간호원한테
애기를 줄 때

1. 분만장 간호원은 애기와 함께 애기 chart를 애기방으로 가지고 간다.
2. 애기와 chart를 애기방 간호원에게 줘서 애기를 침대에 누이게 한 후 두 사람이 입회하여 애기의 모든 상황을 확인한다.
3. 모든 상황을 확인한 후 애기방에 비치된 신생아 대장에 기재할 내용을 산과 간호원이 기재한 후 인계 인수자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
4. 산과에 비치된 애기 엄마chart에다 분만 일자 및 시간, 애기 체중, 애기성별, 분만형, 산모상태, 그리고 애기방 누구에게 몇시 몇분에 애기를 줬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서명한다.

예; 신 생 아 대 장

일련번호	인수·인계 일자·시간	산모성명	신생아 성별	체중	분만형	분만장 간호원인	애기방 간호원인	주치의	인턴
101	12月 25. 10pm.	김팔자	남자	32kg	N.F.S.D.	강옥애	박창숙	원 " "	김 " "
102									
103									

호원은 애기 침대 머리 쪽에 붙일 명찰 내용을 자세히 기입하여 침대 머리에 끼운다.

5. 간호원은 분만장 간호원한테서

신생아실에서 시행
되어야 할 사항

① 분만장 간호원한테서

애기를 받을 때

1. 분만장 간호원한테서 애기와 chart를 받는다.
2. 분만장 간호원 입회 하에 애기를 침대에 누인 후 애기 chart에 있는 엄마 이름과 애기가 발에 끼고 온 이름과 우선 대조한 다음 애기 성기와 기재된 성별 표시를 대조 확인한다.
동시에 발에 낀 기재된 사항 즉 입원 일자, 분만일자 및 시간, 엄마연령, 애기 체중, 분만형을 확인한다.
3. 모든 상황을 확인한 후 애기를 덜어 두고 양쪽 간호원은 “신생아 대장”에 기재 사항을 기재한 후 각각 서명 날인한다.
4. 서명 날인이 끝난 후 애기방간

받은 애기 chart에다 애기 상태와 몇시 몇분에 어느 산모애기, 남자 혹은 여아, 몇 kg 차리를 분만장 간호원 누구한테서 받았

다는 것을 기입한다.

6. 간호원은 애기 방에 비치된 standard order 대로 시행한다.

② Order 시행할 때

1. 애기방에 비치된 standard order 대로 시행하되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주치의와 연락하여 처치를 한다.

③ Charting할 때

1. 시행한 처치를 기입하되 수시로 애기 상태를 관찰하여 기입한다.
2. 애기가 엄마한테 갈 경우 간호원 누구가 몇시 몇분에 애기 엄마 혹은 보호자 누구한테 애기를 뒀다는 것을 자세히 기입한다.
3. 애기가 엄마한테서 돌아올 때

는 반드시 갖다준 간호원이 가서 데려오되 애기를 확인하고 데려온다. 즉시 chart에다 몇시 몇분에 애기 엄마 혹은 보호자 누구한테서 데려왔다는 것을 기입한다.

④ 애기 인계 할 때

1. 인계 시간 30분 전까지 애기를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2. 인수 인제시 침대 머리에 있는 애기 명찰과 애기 발찌와 애기 모습 전체를 대조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인수 인계한다.
3. 인수 인제가 끝나면 인제대장에 기재 사항을 전부 기재하고 인수 인제자가 서명 날인한다.

인 계 대 장

인수 인제 날짜 및 시간	Incubator 애기 수와 신생아수의 이상 여부	비	구	인수자 성명	인제자 성명
1月 20日 7am	Incubator 애기 5명 신생아 10명 합계 15명	건애기 박애기	임원 퇴원	민 ○ ○	신 ○ ○

수와 질의 병행

문교부에 의하면 금년도 각간호학교 신입생수 정원이 1,600 명으로 간호학과가 175 명, 간호학교가 1135 명, 기술학교가 290 명으로 되어 있다.

아직 2차입학시일이 끝나지 않아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이 정원을 제대로 채운다면 작년도의 전국간호학교 신입생수 1,305 명보다 약 300 명이 증가된 셈이다. 해마다 증가되는 간호학생의 수에 비례해서 간호원의 질적 향상도 병행을 가져 오도록 학차를 가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